

델파이 1.0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

Delphi XE2

데브기어

www.devgear.co.kr
02-595-4288

- 종류 : 윈도우용 개발 툴
- 특징 : 윈도우, 맥 OS X, iOS로 크로스 컴파일, 속도와 스타일에서 우수한 네이티브 개발 지원
- 평가 : ★★★★★☆
- 가격 : 별도 문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벤트 페이지 참조)



엠바카데로가 볼랜드로부터 개발 툴 사업 부문을 전격 인수한 지 3년여 만에 델파이 1.0 버전 이후 가장 혁신적이면서 변화 규모가 가장 큰 새 버전을 선보였다. 새 버전인 델파이 XE2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최신 하드웨어가 탑재하고 있는 64비트를 기존 32비트와 함께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델파이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VCL을 뛰어넘는 새로운 파이어몽키(Fire Monkey)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맥 OS X, 아이폰, HD 등 델파이 개발자가 VCL만으로는 기능이나 성능상의 이유로 사실상 구현할 수 없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바로 파이어몽키다. 파이어몽키로 그래픽을 구현할 경우 처리 속도 면에서도 VCL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현저히 빨라졌다. 이제 델파이 개발자들은 스마트폰, 애플의 맥 등으로 인해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에 걸맞은 애플리케이션을 파이어몽키를 통해 RAD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델파이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는 틀을 넘어 XE2에서는 크로스 컴파일이 적용된다. 즉 델파이로 한번 개발하면 윈도우 32비트/64비트, 맥 OS X, iOS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컴파일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웹, 클라우드 지원, 연결성과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된 데이터스냅(DataSnap) 멀티

티어 프레임워크, 어떠한 UI 컨트롤에 어떠한 데이터도 바로 연결해주는 라이브바인딩(LiveBinding) 기술, 패스트리포트(Fast Report) 씨드파티 툴 추가 등 이 글에서 모두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술이 추가되었다.

속도가 빠른 윈도우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64비트 지원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자바, 닷넷 등 가상머신 또는 웹서버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할 때 델파이로 개발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델파이의 핵심 강점은 네이티브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서 최고의 RAD 개발 환경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과거 델파이 애플리케이션은 32비트 CPU만을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서버 프로그램이나 초대형 ERP와 같이 매우 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64비트 OS가 윈도우 XP 시절부터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기다려 왔던 64비트 지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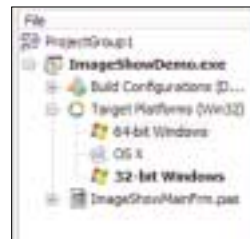
파이어몽키의 화려한 UX와 크로스 플랫폼 지원

오늘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들에서도 화려하고 멋진 UI는 이미 당연한 조건이 되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UI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멋진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속도가 느리거나 인터랙티브한 UX를



Delphi XE2



64비트, 맥 OS X, iOS를 지원하는 크로스 컴파일러

제공하지 못해서는 사용자의 눈밖에 나기 십상이다. 게다가 윈도우, 맥, 아이패드, 모바일 등 다양한 컴퓨팅 플랫폼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파이어몽키 플랫폼은 기존 VCL 기반의 델파이로는 커버할 수 없었던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답으로서 델파이 XE2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윈도우와 맥 OSX에 대한 크로스 컴파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색다른 수준의 화려한 UI를 제공한다. 실행속도 측면을 보면 이미지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존의 VCL보다도 현저히 빠르다. 이는 파이어몽키가 하드웨어의 GPU 파워를 심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 처리 방식이 비트맵이 아닌 벡터 방식으로 전격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빠르게 작동하는 2D/3D/HD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엠바카데로가 올해 초에 VGSScene 등 UX 컴포넌트로 유명한 KSDev 인수를 발표했는데 그 해당 기술이 도입된 결과로 여겨진다.

델파이 XE2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UI 요소 중에서 VCL과 파이어몽키 모두에 적용되는 스타일과 테마 또한 눈길을 끈다. 웹 개발로 치면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 즉 CSS와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다. UI의 색상 크기 등에 대한 설정을 별도의 파일에 정의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UI 변경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거나 UI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간단해졌다. 또한 색상 크기 등 UI 스타일은 디자인 전문가에게 직접 맡겨 두고 개발자는 만들어진 스타일이나 테마를 한번의 클릭으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브바인딩

이전 버전의 델파이에서는 데이터를 에디트 박스나 그리드와 같은 UI에 연결하려면 데이터 연결 속성을 가지고 있는 UI 컴포넌트를 사용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DB에 있는 특정 수강생의 이름을 에디트박스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TEdit가 아닌 TdbEdit를 사용해야 별도의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XE2에서 새롭게 도입된 라이브바인딩은 어떤 UI 요소에 어떤 데이터든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즉 TEdit에도 얼마든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브바인딩의 또 하나의 특징은 데이터 소스에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DB에 있는 데이터만을 별도의 코딩 없이 연결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웹서비스, 파일시스템 등을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게다가 데이터가 연결된 UI 컨트롤 자체가 또 다른 UI 요소의 데이터 소스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리드가 프로그레스바의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프로그레스 바를 이동하면 그리드의 리스트가 이에 반응해 함께 스크롤될 수 있다. 델파이 XE2를 보면 디자인 요소, 컴파일, 콘



크로스 플랫폼

롤을 다른 컨트롤 안에 삽입하기 등 전반적으로 '매우 유연해졌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특징은 데이터 바인딩에서도 멋지게 구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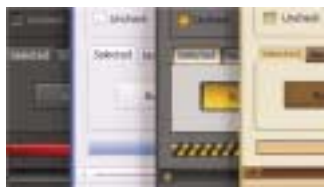
데이터스냅과 클라우드 연결

델파이로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미들웨어를 구축하려면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인 멀티티어 프레임워크, 즉 데이터스냅을 사용한다. 일단 데이터스냅으로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티어를 구성하게 되면 JSON, REST 등 인터넷을 통한 웹서비스로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델파이나 RadPHP로 만들 수 있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폰 7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JSON, REST, HTTP(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일명 RAD 클라우드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Callback과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므로,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에 브로드캐스팅을 하거나 특정 클라이언트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델파이의 DBExpress는 아마존 EC2나 윈도우 애저(Azure)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연결 기능도 내장되어 있다.



코드 없이 하드웨어 효과



손쉬운 UI 스타일 적용

모바일 지원 및 추가된 컴포넌트

델파이의 생산성은 단연 최고다. 이번 XE2 버전에서는 패스트 리포트와 도움말 인사이트 문서 생성기 등의 생산성 도구가 더 추가되었다. 기존의 레이브리포트(Rave Report)도 계속 제공된다. 또한 여전히 델파이 7 등 하위 버전도 함께 제공되는 정책도 지속된다. 다만 제품 구성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보다 상위인 얼티미트 에디션이 추가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업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한 SQL 에디터, SQL 튜닝, 프로파일링 등 엠바카데로의 DB 전문가 툴이 더 추가된 에디션으로 DB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개발하는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호섭 hsmoon@hanafos.com